

# 해방과 함께 다시 시작한 우리말 문장수업

최현배의 《우리말본》

이수열 | 국어순화운동가

내 문장수업 역정은 1937년 4월에 입학해서 1943년 3월에 졸업한 초등학교(심상소학교) 시절에 출발했다. 일제는 《보통학교 조선어 독본》으로 우리말을 제2국어로 가르치다가 1939년에 완전히 폐지하고 《국어독본》이라는 일어교과서로 언어교육을 하면서 작문교육을 철저히 했다. 주간 단위 수업 시간표에 철방(綴方=글짓기) 시간 한 번을 정해 놓고 원고지를 준비시켜, 학생들이, 정해 준 제목에 맞춰 쓴 글을 선생님이 거둬 하나하나 읽으면서 붉은 글씨로 첨삭해 돌려주고 정서하게 했다. 6년 동안 작문교육을 이렇게 한 결과 우수한 학생들은 면사무소나 군청에 취직해 공문서를 거뜬히 기안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했고, 나는 졸업 후 1년 반 동안 독학한 끝에 경기도에서 시행한 국민학교 교원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했다. 당시에 그런 시험문제는 철저한 주관식이었기 때문에 작문능력이 훌륭하면 감히 도전할 수 없었다.

## 《우리말본》으로 본격적인 문장수업 받아

이렇게 해서 초등교원이 된 다음 해 8·15 해방을 맞아, 우리말로 우리 교육을 하게 되자, 그 동안 어깨 너머로 배운 한글 지식을 바탕으로 한글맞춤법을 익히고, 최현배 선생의 《중등조선말본》과 《우리말본》(정음문화사)을 읽어 익힌 것이 본격적인 문장수업의 출발이다. 당시 최현배 선생이 중등학교 국어교사 자격검정시험 출제위원이셨기 때문에, 나는 9백여쪽이나 되는 《우리말본》의 방대한 내용을 거둬해 읽다가, 책이 남아빠지면 버리고 새로 사 읽었다. 국어학도들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말본》은 최현배 선생이 해박하고 요묘한 언어지식과 명석한 철학 논리로 완벽하게 체계화한, 우리나라 최초면서 아직은 비견할 대상이 없는 뛰어난 문법서다. 군소학자들과 문인들이 낸 문법서와 문장교본들은 모두 그 그늘에서 빛을 잃는다.

《우리말본》이 빈틈없는 음운, 어휘, 통사에 관한 지식을 길러 준 책이라면, 그 책으로 얻은 힘의 바탕 위에 내실이 풍부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해 준 책으로 《용비어천가》(보고사)와 《두시언해》(신구문화사), 《송강가사》(홍신문화사), 양주동의 《고가연구》(일조각), 이병기와 백 철의 공저 《국문학전사》(신구문화사),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현대문학사)가 있다.

《용비어천가》는 일대일로 대응하는 적합한 비유와 일언일구도 침삭하거나 대체할 여지가 없이 세련된 표현

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특히 한자어가 하나도 없는 순수한 토박이말로 표현한 제2장 “불휘 기픈 남긴 부르매 아니뵘씨 곳도요 여름 하나니, 시미 기픈 무른 ?!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바라래 가나니”는 김만중이 《서포만필》에서 우리 동방의 ‘이소’라며 극찬한,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사미인곡>과 더불어 천고에 빛날 본보기 문장이다. 《두시언해》는 당나라 시성 두보의 시를 조선 왕조 성종 때 국역한 것으로, 당시의 토박이말을 절묘하게 구사해 탁월한 번역문학의 묘미를 보여 주면서, 윤고산의 시조와 더불어 우수한 우리말의 극치를 보여준다. 《고가연구》는 양주동 선생이, 향찰 문자로 기록한 신라의 향가 14수를 해박한 한문 지식으로 치밀한 고증을 거쳐 현대문으로 번역한 것으로, 난삽한 표현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만 끈기 있게 읽어내는 동안 어려운 글을 독해하는 힘과 작문능력이 알게 모르게 성장한다. 《국문학전사》는 거의 완벽한 언문일치 문장으로 평이하게 기술해, 국문학의 역사를 일사불란한 체계로 보여주면서 자연스러운 글쓰기의 본보기 구실을 한다. 《한국현대문학사》는 갑오경장 이후 1950년대 이전의 신문학사를 방법론적 관점에 입각해 그 시기의 전반적인 문학활동을 작가별로 상술한 것으로, 해박한 지식과 여느 평론가와 작가들의 글에서 보기 드문, 특유하게 정연한 문맥이 독자를 매료해 마냥 읽다 보면 은연중에 내 글투가 닮아간다.

## 다양한 분야의 책 읽어야 문장력 향상돼

이상으로 내 변변치 못한 문장수업 과정을 적으면서, 작문 능력은 ‘문장강화’ ‘작문교본’ 따위를 듣거나 읽어서 단시일에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아기부터 동화와 노래를 즐기듯이, 부담감 없이 즐겁게 쓰는 동안 국어답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되, 요즘의 매체환경이 자아내는 언어 저질화 현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각자의 수준에 어울리는 건전한 책을 읽어 학문에 정진하는 동안 모르게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

